

작은 거인이 쏘아올린 유격수 '타격왕'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9> 9번 타자 김선빈

자신의 올 시즌에 대해 '70점'이라고 말하는 김선빈. 팬들에게는 100점 만점을 쥐고 부족한 김선빈의 뜨거운 시즌이었다.

'작은 거인' 김선빈은 2017시즌 아무진 타격 실력으로 KBO리그를 접수했다. 삼성과의 개막시리즈 포함 4월까지 26경기에서 0.337의 타율을 기록한 그는 5월 26경기에서는 0.391의 타율을 만들었다. 물론 김선빈의 방망이는 6월에는 무려 0.419의 월간 타율을 장식했다.

매년 여름 부상과 부진에 시달렸던 김선빈이었지만 올 시즌은 달랐다. 8월에도 0.417의 타율을 찍는 등 꾸준한 모습을 보인 그는 시즌 최종 타율을 0.370에 맞추면서 '타격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는 또 전체 144경기 중 137경기에 등장해 입단 후 가장 많은 시간을 그라운드에서 보냈다.

김선빈의 '내 맘대로 타격'이었다. 상무에서 보낸 2년이 찬란한 2017시즌의 발판이 됐다. 치열한 경쟁의 짐을 내려놓은 그는 밀고 당기며 자신의 타격을 시험해보고, 가다듬었다.

본무대에서도 김선빈의 타격이 빛났다. 당겨치기에도 자신감이 붙으면서 김선빈을 상대하는 배터리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빈틈없는 타격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공을 보낸 그는 다섯 차례 담장을 넘기기도 했다.

특히 7월 25일 SK와의 홈경기에서 타진 김선빈의 동점 투런은 손에 꼽는 장면 중 하나다. 8-10으로 패배가 절뚝 9회말 2사 1루. 김선빈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는 투런포를 터트리며 챔피언스필드를 들췄다. 그리고 KIA는 10회말 김주찬의 2루타와 바나디아의 기습 번트도 이어 투수 박희수의 송구 실책으로 짜릿한 끝내기 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 경기 끝난 뒤 김선빈은 "흠뻑을 치겠다는 생각으로 타석에 들어갔다"며 승리를 기뻐했다.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마침표였던 그는 대체불가 수비 자원이기도 했다. 김선빈이 발목 통증으로 호흡을 고르는 동안 KIA는 유격수 백업 고민에 시름해야 했다.

약점으로 꼽히던 '뜬공 트라우마'를 극복한 그는 송구에서도 안정감을 더하면서 리그를 대표하는 유격수로 우뚝 섰다.

지난 2009년 불안한 수비 탓에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김선빈은 2017년 가을에는 우승의 주역이 되어 활짝 웃었다. 그리고 김선빈은 시즌을 갈무리하는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유격수 부문 수상자로 단상에 오르며 최고의 시즌을 돌아볼 수 있었다.

김선빈의 화려한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선빈은 FA 선수를 제외하고 팀 내 연봉고과 1위를

찍으며 대폭적인 연봉 인상을 앞두고 있다. 또 1월에는 '꽃빈(태명)'이 태어나면서 아빠가 된다.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오른쪽 발목 뺑자각 제거술 및 외측인대 봉합술을 받았던 김선빈의 몸상태는 '이상 무'. 지난 7일 김스를 풀었고 지금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1월부터는 본격적인 재활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김선빈은 "골든글러브를 받게 돼서 좋다. 엄청 좋다(웃음). 골든글러브 시상식을 앞두고 살짝 걱정은 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표를 받아서 더 놀랐다. 제대하고 나서 내 실력적인 부분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 많이 뛰었고, 점점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인정받은 것 같다"며 "경기를 많이 뛰는 게 가장 의미있다. 지금까지 야구하면서 가장 많이 뛰었다. 감독님과 코치님이 정말 많이 배려해주셨다. 체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관리해주셔서 좋은 결과를

밀고 당기고 '내 맘대로 타격' 시즌 타율 0.370

SK와 홈경기 9회말 2아웃 동점 투런 잊지못해

144경기 중 137경기 출전 ... 유격수 골든글러브까지

"내 점수는 70점 ...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이겠다"

만들 수 있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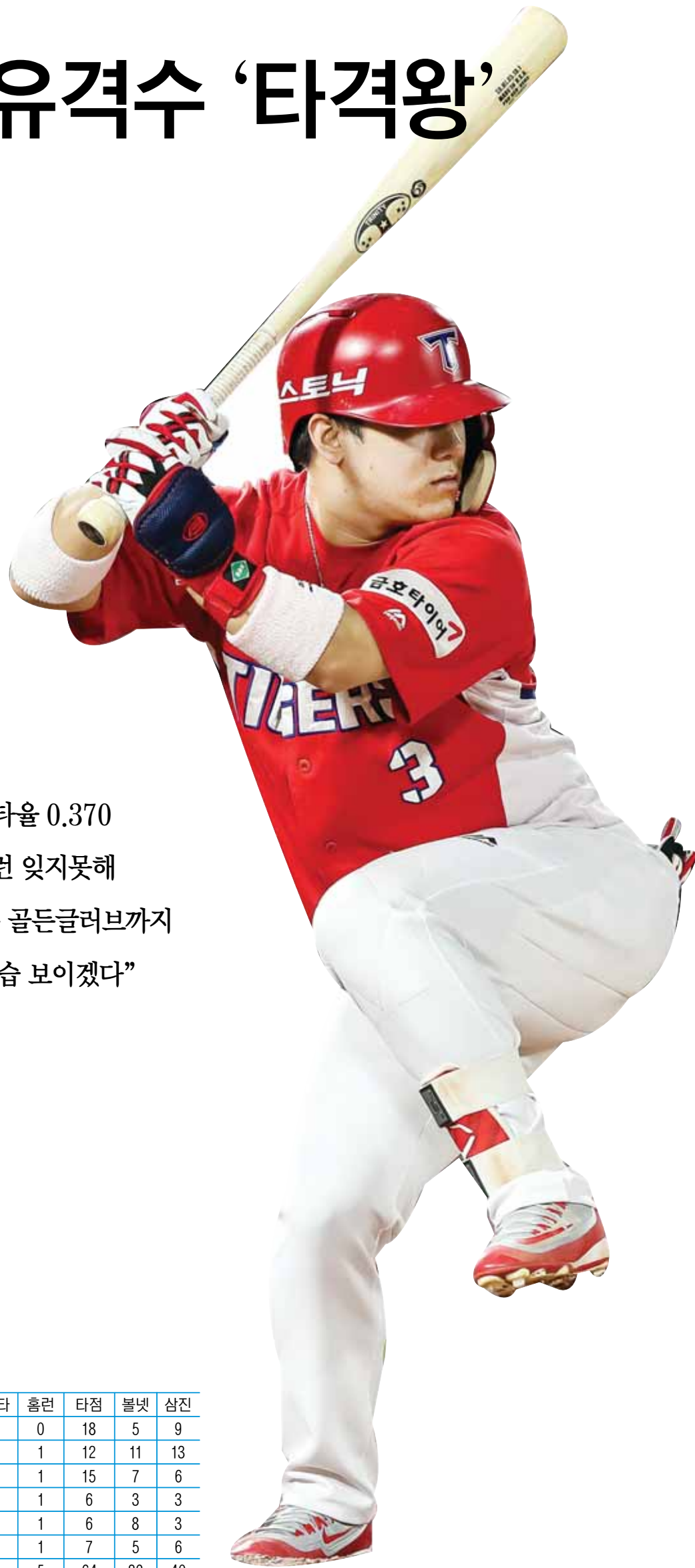
만족스러운 시즌이었다고 하면서도 김선빈은 자신에게 '70점'이라는 부족한 점수를 줬다. 수비가 김선빈에게는 아쉬움이다.

"뜬 공을 많이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만족스럽다. 하지만 실책을 너무 많이 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실책을 해서 올 시즌 내 점수는 70점이다"며 웃은 김선빈은 "이제 곧 아이도 태어나고 이제 나 혼자만 아닌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이 크다. 올 시즌을 보내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재활 잘해서 내년에도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선빈 월별 성적

구분	경기	타율	타수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볼넷	삼진
3~4월	26	0.337	86	13	29	6	0	0	18	5	9
5월	26	0.391	87	14	34	6	0	1	12	11	13
6월	24	0.419	86	18	36	9	0	1	15	7	6
7월	18	0.361	61	13	22	4	1	1	6	3	3
8월	17	0.417	60	12	25	5	0	1	6	8	3
9월이상	26	0.313	96	14	30	4	0	1	7	5	6
총합	137	0.370	476	84	176	34	1	5	64	39	40



올 골프계 최대 논란 톰프슨 '4벌타 사건'

2017시즌 전 세계 골프계에서 벌어진 논란 가운데 가장 떠들썩했던 것은 렉시 톰프슨(미국)의 '4벌타 사건'이었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인 골프채널과 골프위크는 21일 나란히 올해의 골프계 논란을 정리했는데 두 매체 모두 이 사건을 올해의 '최대 논란'으로 평가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벌어졌다. 당시 톰프슨은 4라운드 12번 홀까지 3타 차 선두를 달려 우승이 유력했으나 전날 3라운드 17번 홀에서 약 50cm 파 퍼트를 남기고 공을 마크했다가 다시 놓는 과정에서 '오스 플레이'를 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TV 시청자 제보로 밝혀졌으며 경기위원회는 논의 끝에 톰프슨이 공을 홀 가까이 놔다고 판정, 오스 플레이에 따른 2벌타를 부과했다. 또 톰프슨이 3라운드를 마친 뒤 2벌타를 반영하지 않은 스코어카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2벌타를 추가로 부과했다. 톰프슨은 결국 3타 차 리드를 순식간에 날려버렸고 연장전에서 유소연에게 패했다.

결국 이 사태는 골프 규정 개정으로 이어졌고, 2018년 1월부터 시청자 제보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선수의 규정 위반을 적발하지 않기로 했다. 벌타가 주어진 사실을 모르고 스코어카드를 냈을 때는 스코어카드 오기에 따른 추가 벌타도 없도록 했다.

골프위크는 골프계 논란거리 5위에 지난 10월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1라운드 취소 사건을 올려놓기도 했다.

이 대회에서는 첫날 일부 선수들이 그린 주위 프린지 구역에서 공을 집어 들었으나 경기위원회에서 벌타를 부과하지 않아 판정 논란이 일었다. 경기위원회에서는 "그린 구역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선수들이 2라운드 출전을 거부하면서 판정에 승복하지 않았고, 결국 1라운드를 취소하고 3라운드 54홀 대회로 축소됐다. /연합뉴스

김시우 PGA 내년시즌 기대감

"몸 많이 좋아지고 비거리 늘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코리아 브러더스'의 대표주자인 김시우(22)는 체력훈련으로 몸이 많이 좋아지고 비거리도 늘었다며, 내년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시우는 21일 경기도 성남 남서쪽 컨트리클럽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겨울에는 체력훈련도 소홀하고 준비도 잘 못 한 것이 부상으로 이어져 올해 초반에 힘들었다. 올해는 시즌 끝나고 체력훈련 일정 잡아서 많이 준비했다"며 "몸도 많이 올라오고 비거리도 10~15야드 정도 더 늘었다. 새해 첫 대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시우는 내년 1월 4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샌트리 챔피언스 토너먼트에 출전해 시해를 연다.

2015~2016시즌 PGA 투어 무대를 밟은 김시우에게 올해는 잊지 못할 한 해였다. 허리 부상 여파로 출발은 다소 주춤했으나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최연소로 우승하면서 단숨에 정상급 골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김시우는 "필 미켈슨이랑 네 번 같이 쳤는데 그의 쇼트게임을 보면서 난 완전히 얘기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스틴 토머스, 제이슨 데이, 더스틴 존슨과 치면서는 드라이버샷을 많이 배웠다"고 말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이후 김시우는 대한골프협회와 PGA에 기부를 약속했다. 그리고 이날 그 약속을 지켜 후배 국가대표 양성을 위해 1억원을 내놓았다.

고등학교 때 2년간 국가대표 활동을 했던 김시우는 "어릴 때부터 가방과 옷에 태극기를 달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부러웠다. 일찍 상비군부터 들어갈 수 있어서 기쁘고 스스로도 자랑스럽다"며 "아서 잘 돼서 불우이웃이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하고 나서 여유가 생겨서 기부를 하게 됐다. 협회와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연합뉴스

고교 야구선수들 심리검사 사회성·행복감 등 일반학생들보다 낮다

KBO, 전국 72개 고교 1595명 조사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고교 야구선수들의 건전한 심리 발달을 위한 심리검사 및 멘탈 솔루션 연구를 진행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교 야구선수들의 건강한 심리 수준 도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국 72개 고등학교 야구선수 1595명과 일반 학생 32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야구선수들은 도덕성을 제외한 사회성, 자아존중감, 행복감, 학교 적응력,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 요인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반 학생들보다 수치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건강한 심리 수준 발달을 위한 최종 솔루션도 제시했다.

제안된 솔루션은 전문 스포츠심리상담사 배치, 포지션별 전문 지도자 배치, 직업 전환 프로그램 운영, Web 기반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운영, 지도자 코칭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으로, 선수들이 더욱 안정적이고 건강한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KBO는 이번 연구가 고교 야구선수들의 심리 수준에 대한 전반적 상황 파악과 함께 건전한 심리 발달에 필요한 정책 방향 설정 및 수립에 기초적인 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료는 연구에 참여한 72개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며, 유소년사이버야구아카데미(www.edubaseball.or.kr)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고교 야구선수 심리검사 및 솔루션 수립에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sjt2001@deu.ac.kr)을 통해 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코비, LA 영구결번식 날 유니폼 9억원 어치 팔렸다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가운데)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선수생활을 했던 LA 레이커스의 홈구장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 아레나에서 열린 영구결번식(8번, 24번)에서 가족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 LA 레이커스에서 은퇴한 코비 브라이언트의 유니폼이 영구결번식 날에만 82만4000달러(약 8억9000만원) 어치가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1일 LA 레이커스의 홈 경기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를 소유한 AEG 사의 온라인 부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라이언 부회장에 따르면 브라이언트의 유니폼 영구결번식이 열린 지난 19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61만6000달러, 온라인 스토어에서 14만7000달러에 이르는 유니폼이 팔렸고 나머지 6만1000달러어치의 유니폼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레이커스 스토어 등에서 판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브라이언트는 지난해 4월 은퇴했는데 은퇴 당일에는 브라이언트 관련 기념품이 총 190만 달러(20억 원)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은퇴 당일 스테이플스 센터에서만 120만 달러 정도의 판매가 이뤄졌으며 이는 경기장 하루 기념품 최대 판매 액수 기록이었다.

지난해 4월 브라이언트 은퇴 경기 이전에는 2007년 12월 영국의 록 밴드 레드 제플린이 영국 런던 O2 아레나에서 콘서트를 열었을 때의 100만 달러 판매가 기록이었다. /연합뉴스